

Jung Yujeen

Solo Exhibition

Bridge

[verb] 다리를 놓다, 연결하다, 잇다

2019. 5. 3 - 2019. 6. 26

아트스페이스벤 플러스(ARTSPACEBEN+)는 2019년 5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웨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Sheraton Seoul Palace Gangnam Hotel)에서 정유진(Jung Yujeen) 작가의 첫 개인전을 연다.

정유진 작가는 한강에 놓여진 다리를 여러 색상을 활용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로 캔버스에 담아내고 있다. '내가 지나던 다리와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나?'란 생각이 들만큼 작가의 그림은 아름답다. 그리고 다시금 바라본 다리는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인연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게 한다. 작가의 그림 속 풍경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순간 실제 한강다리 주변의 풍경은 어느덧 내게, 작가가 보여준 장면들을 상상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영화 속처럼 이국적인 풍경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걸 문득 깨닫게 해준다.

작가는 왜 '다리'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그렸을까? 작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은 정유진 작가가 그려낸 다리는 한강다리를 아름답게 회화로 표현하는데 목적을 둔 풍경화가 아니다. 홍대에서 회화와 건축학을 전공한 작가에게 많은 궁금증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왜? 그림을 그려야 할까?', '왜? 건축물을 지어야 할까?' 이런 두가지의 궁금증이 만나 작가는 자신이 그리는 '다리'를 '어떻게 다리를 그려야 할까?'와 '왜 세상에 다리가 필요할까?' 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1987년생 작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했던 건축물이어서 그냥 존재하는구나 생각했던 '한강다리'에 대해 작가의 'BRIGE' 작품은 다시 질문을 시작하였다. '왜...?'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표현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있다면 정유진 작가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 발생의 이유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작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즉 그녀는 자신의 작업을 통해 관객 각각의 경험에 의한 기억과 궁금증을 깨워 일상적인 공간을 낯설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잊고 있는 존재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저는 다리를 그리는 게 아니라 캔버스 위에 다리를 짓는다'고 말하는 작가의 말처럼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마치 건축과 닮아 있다.

ARTSPACEBEN+

작가는 색을 바른 것이 아닌 구조를 세우고 세워진 구조에 시간과 공기와 빛을 담아 간다. 그래서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은 실제 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마치 해가 지고 있는 듯 하지만 해가 뜨고 있는 것과도 닮은 작가의 그림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낸다. 도심에 홀로 서 있는 여러 상상 속 동물들은 왜? 이곳에 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에선 볼 수 없기에 다리 밑에 서면 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며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이 그저 아쉽게만 느껴지게 한다. 너무나도 익숙한 다리들이 되었지만 그 다리 하나하나에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다리는 공간을 이어주는 구조물이지만 실제 단순히 두 공간을 이어주는 구조물로 끝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문명의 연결 고리이기도 하다. 존재함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함과 존재의 이유를 정유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다시금 깨우게 된다.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다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당신은 다리를 건너 누구를 만나러 가나요? 시간이 날 때 다리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라보자. 가끔은 그 안에 우리가 잊고 있는 삶의 크고 따뜻한 가치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아트스페이스벤 |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49

+82 2 742 0788

ARTSPACEBEN 49, Seongbuk-ro, Seongbuk-gu, Seoul, Korea 02880

아트스페이스벤+ |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60 웨라톤 서울 팰라스 강남 호텔

+82 2 591 0788

ARTSPACEBEN+ SHERATON SEOUL PALACE GANGNAM HOTEL 160 Sapyeong-daero, Seocho-gu, Seoul. Korea 06578

ARTSPACEBEN+

Education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2013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실내건축학과 졸업

Exhibitions

2019 'Bridge' 개인전, ARTSPACEBEN+, 서울

2018 대한민국미술축전 KAFA & 국제아트페어, 킨텍스, 일산

'I am a painter', 필 갤러리, 서울

'군집개인초대전', 강릉시립미술관, 강릉

'아름다운 동행 _숲이 길이 되다-2부', SNU빌딩 베리타스 홀, 서울

2017 '통영아트페어 _ART TONGYEONG 그 길을 묻다', 통영시민문화회관, 통영

'3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 아트페어', 킨텍스, 일산

'아름다운 동행 _숲이 길이 되다-1부', SNU빌딩 베리타스 홀, 서울

'Master of Illusion _그림, 현실로 스며들다', 갤러리H, 서울

'새로운 형상-실재와 환영', 동아대학교 석당미술관, 부산

2016 '2016 부산국제아트페어 BIAF', BEXCO, 부산(초대작가)

'Affordable Art Fair Singapore', F1 Pir Building, 싱가포르

'CONTEMPORARIES' 갤러리 아트파크 개관전, 갤러리 아트파크 블루스퀘어, 서울

2015 '나눔展', 스페이스 선 플러스, 서울

'Contemporary in Novotel suwon', 노보텔엠베서더, 수원

2014 'The 2nd "Singapore Bank Art fair", Gallery AKA, Pan pacific hotel, 싱가포르

'작전명: 요셉의원을 도와라 Part 4' 자선전, 126 Mansion, 서울

'동행(同行)', 갤러리 아래아, 서울

'Layered scenes', 갤러리 스페이스플러스, 서울

'同眼異知(동안이지)', 갤러리 아래아, 서울

2012 'Painters_화가들3인전', 갤러리 가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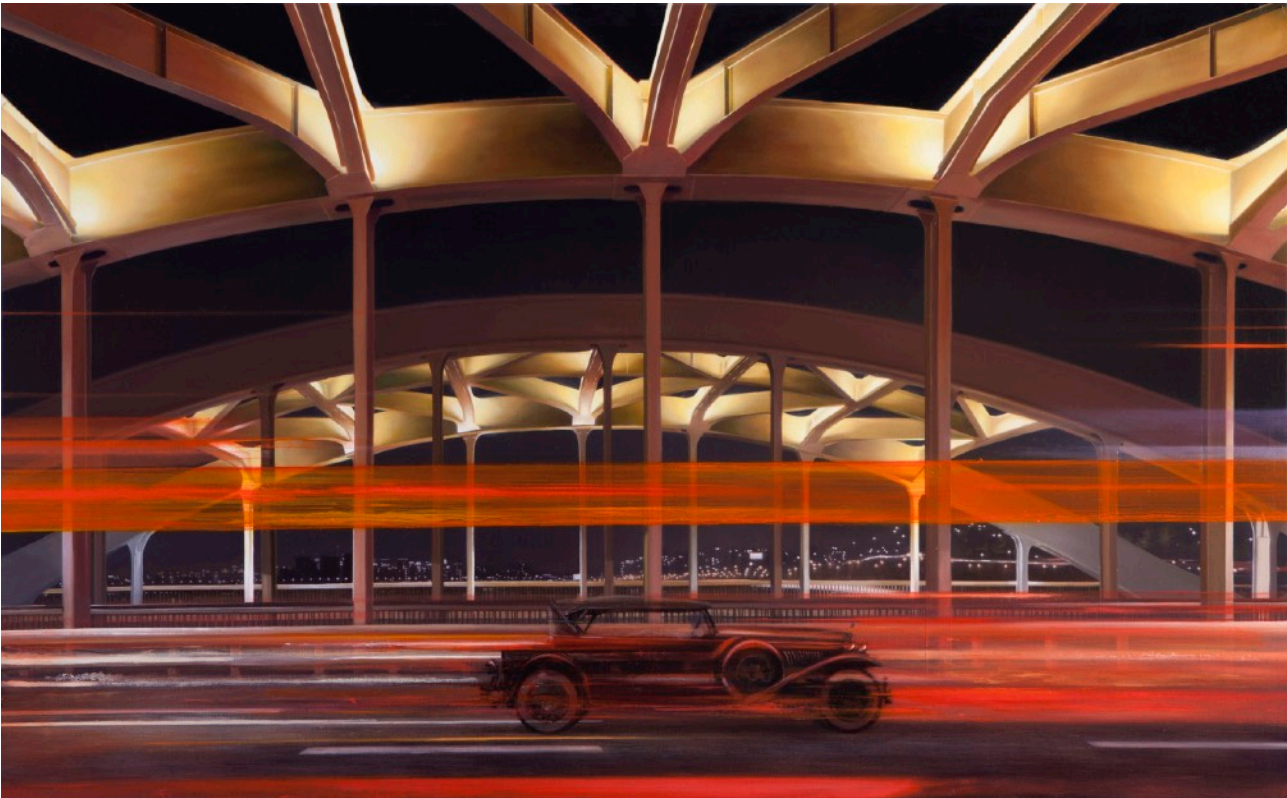
2011 '어영부영', 팔레드서울, 서울

Awards

2017 제 36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평론가상 수상

Collections

2016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소장



Scene# Hangang Bridge
(Between Hangang-ro and Bondong)
2017
Oil on canvas
72.7x116.8cm



Scene# Chungdam Bridge
(Between Jayangdong and Cheongdamdong)
2016
Oil on canvas
116.8x80.3cm



Scene# Youngdong Bridge
Between Jayangdong and Cheongdamdong
2018
Oil on canvas
130.3x193.9cm



Scene# Sungsu Bridge1
(Between Seongsudong and Apgujeondong)
2019
Oil on canvas
97.0x162.2cm



Scene# Sungsu Bridge2

Between Seongsudong and Apgujeondong

2019

Oil on canvas

80.0x200.0cm



Scene# Banpo&Jamsu Bridge
(Between Seobingodong and Banpodong)
2016
Oil on canvas
50.0x72.7cm



Scene# Hannam Bridge
(Between Hannamdong and Sinsadong)
2018
Oil on canvas
53.0x122.7cm (53.0x40.9*3)